

星川洞의 信仰構造

고 광 민 *

1

제주도 여러 집단들의 전통적인 신앙구조는 그들 집단들의 諸般事를 관장한다고 믿어온 巫俗信仰에서 찾는 게 합리적이다. 현대의 종교도 없는 것은 아니나 무속신앙이야말로 집단 공동문화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神堂에서 구체화된다.

성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천동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해당되나, 해안가 포구를 중심으로 13가호만 모여 살던 자그마한 동네였다. 중문관광단지 개발계획으로 지금은 廢洞되고, 그 자리에는 제주 관광어촌이 들어섰다. 성천동이 속해있는 중문이라는 한 마을의 信仰構造가 파악된 후에 성천동만이 갖고 있는 신앙구조가 드러날 것이다.

중문마을의 경우도 마을 공동으로 섬겨지는 신당이 여럿이다. 일반적인 제주도 巫俗 현상에서 한 마을의 경우일지라도 여러 신당들이 갖고 있는 신들의 職能別 개념 속에서 중문마을이라는 신앙권 내의 여러 신당들의 직능에 따른 신앙구조를 살펴본 후에 성천동만이 갖고 있는 신앙구조와 형태를 알아본다.

* 제주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1. 1. 本郷神

마을이라는 한 문화권 내의 토지와 주민들의 諸般事를 차지하여 수호해주는 神을 '본향신'이라 하고 그 신을 모신 당을 '본향당'이라 한다. 본향신은 동일 신앙집단 내의 토지, 산수, 나무 등 자연의 주인임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호적과 출산은 물론 죽음과 삶 등 생활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신으로 통념되고 있다. 토지와 산수 등 자연의 주인이라 함은 그 구역 내의 토지의 임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본향신'을 지금도 '토주관' 또는 '土地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본향신을 마을이라는 한 문화권 내의 토지관이라 함은 바로 마을이라는 한 일상적인 문화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 중문마을이라는 신앙집단 속에서 이와 같은 직능을 갖고 있는 神堂은 속칭 '드랍지께'다.

1. 2. 生業守護神

生業守護神은 수렵, 어업, 농업, 축산 등 신앙민들의 생업을 수호 또는 管掌하는 신이다. 이는 마을이라는 한 신앙집단 내 신앙민들의 생업형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중문마을인 경우 그 생업은 농·어업인 만큼 수렵과 관계되는 신은 없다. 농업의 생업을 반영하고 있는 신은 따로 없이 본향신이 그 직능을 대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업과 관계된 漁業神은 뚜렷이 존재한다. 海神이라는 이름 외에 '개당하르방', '개당할망', '개할망', '龍王', '선왕당'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이런 神堂이 현재 성천동 포구 가까이에 두 개 있다.

1. 3. 疾病守護神

疾病守護神은 주로 治病의 직능을 갖고 있는 신이다. 주로 매월 7, 17, 27일 그리고 8, 18, 28일을 祭日로 삼은 堂이 일반적으로 흔하다. 그래서인지 '일렛당' 또는 '으드렛당'이라 하는가 하면 그 직능에 따라 '허믈할망당'이라 하기도 한다. 대개 그 神格은 女神인 게 일반적이다. 중문마을인 경우 '볼목당'이라 하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직능을 갖고 있는 神堂인데, 본풀이

상 본향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되어질 것이다.

2

2.1. 본향당의 신앙형태와 본풀이

중문마을 토지와 산수의 입자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諸般事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을의 본향당은 중문리 서쪽 속칭 '백굿내' 동편 '드람지께'라는 곳에 있다. 제주 방언으로 '께'라 함은 굴이라는 뜻이다. 20여평의 굴 속에 神堂이 마련되어 있다. 굴 속은 평평하다. 동쪽 벽에 네모지게 자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속에 神像을 모셔 놓았다. 이 신상은 천으로 만든 인형이라 한다. 옷도 만들어 입혔는데, 당굿을 할 때만 꺼내어 祭壇에 모셔 앉혀 놓고 굿판을 벌인다. 동쪽에는 반반하게 시멘트로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祭日은 정월 보름과 팔월 보름이다. 정월 보름이 新過歲大祭라면 팔월 보름은 秋收感謝祭라 할 수 있다. 신과세계에는 마을의 각 호에서 주로 여성들이 제물을 차리고 와 본향당에 모이고 매인심방에 의해 祭儀가 행해진다. 제의의 내용은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 등을 기원하고 또 참가한 각 집안별로 가내 안전과 생업의 번창을 비는 것이 주된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되는 제의로서 다른 당굿보다 참가자가 많다.

秋收感謝祭는 제주 무속사회에서 '신만곡대제'라 하기도 한다. 곧 한자어 '新萬穀大祭'에서 온 말인 듯하다.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인 후 새 곡식으로 제물을 마련하여 올리고 기원하는 제라고 전승되고 있다. 이상의 祭日이 정기적인 것이라면 여러 집안마다의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개별적인 제의도 없는 바는 아니다.

이 본향당 안에는 가족관계의 세 神이 좌정해 있다. 夫神격인 '중문이하로 하로산'과 婦神격인 '진궁부인', 그리고 부부신 사이에서 태어난 따님격인 '요왕야기'다. 이들 신들에는 그 신들의 내력담이랄 수 있는 본풀이가 전한다.

중문마을 본향당 본풀이

한라 영주 삼신산(漢拏 瀛洲 三神山) 서쪽 허리 속칭 '소문뽕밭'에서 을축 삼월

대보름날 아홉형제가 태어난다. 이들 아홉형제는 자라서 속칭 '실거리 똥밭'에서 각기 여러 마을로 갈라선다.

'올똥뚜루하로산'이라는 장남은 성산읍 수산리 본향신으로
 '제석천왕하로산'이라는 이남은 애월읍 수산리 본향신으로
 '삼신백관도하로산'이라는 삼남은 남원읍 상·하례리 본향신으로
 '서천밭하로산'이라는 사남은 서귀포시 호근동 본향신으로
 '중문이하로하로산'이라는 오남은 중문마을 본향신으로
 '색달리하로산'이라는 육남은 색달마을 본향신으로
 '열뿔하로산'이라는 칠남은 중문면 상·하례리 본향신으로
 '고나무상태자하로산'이라는 팔남은 안덕면 감산리와 창천리 본향신으로
 '제석천왕하로산'이라는 구남은 대정읍 일과리 본향신으로

각기 흩어져 좌정한다.

중문이하로하로산이라는 중문마을의 본향신은 중문마을로 오자마자 '진궁부인'이라는 여신(女神)과 부부가 된다. 진궁부인은 태기를 갖는다.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는다. 중문이하로산은 화를 내며 이곳을 떠나 살라고 한다. 떠나 살 수밖에 없다. 해산한다. '느진덕정하님'이라는 하인은 중문이하로하로산에게 달려와 그 사실을 알린다.

"진궁부인님께옵서 해산을 했습니다."

"무엇을 낳았느냐?"

"궁녀를 낳았습니다."

말을 낳았다는 말이다. 중문이하로하로산은 시녀에게 이리로 올라서도록 전하라고 이른다. 같이 살아간다. 아기는 천하일색으로 곱게 태어났으나 한두살 자랄수록 행실이 곱지 못하다. 한살적에 아버지 수염도 뽑아버리고 두살은 나니 어머니 젖가슴도 때려 버리는 등 자랄수록 행실이 곱지 못했다. 일곱살이 되어서는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으며 무쇠함에다 집어넣고 이 마을 해안가 '싱거물'로 가 먼바다로 띄워 버린다.

대략, 이상의 내용은 중문마을 본향당의 내력담이 담긴 본풀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문마을의 신앙구조상 본향당과 질병수호신격인 '불목당'은 본풀이는 물론 신앙행위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그러면 중문마을의 질병수호신격인 불목당의 신앙형태와 본풀이를 알아보고 난 후에 두 神堂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2.2. 불목당의 신앙형태와 본풀이

중문마을의 질병수호신격인 ‘불목당’은 이 마을 동쪽 제2황단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언덕에는 커다란 바윗돌이 있다. 바로 그 앞에 돌로 祭壇이 만들어져 있다. 팽자나무를 비롯하여 팽나무, 사대기나무, 가시나무, 녹나무 등이 울창하다. 그 나무가지 마다에는 여러가지 물색천과 명실이 즐비하게 걸려져 있다.

이 당신의 이름은 ‘여선단선 불목당 하단국성일체중저일꿈아기단마을칭’이다.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통칭되는 질병수호신격인 신명의 여러 이름들의 집산인 듯하다. 이 堂神을 위한 정기적인 제일은 6월 매7일과 11월 매7일이다. 개별적인 제의는 이곳에 와서 행해지는 경우도 없진 않으나 불목당을 신앙하는 신앙권 내 어떤 가정에서 굿을 할 때에는 이 신을 祭場으로 모셔다가 굿을 하기도 한다. 女神인 만큼 여러가지 물색옷을 해서 올리고 신의 내력담인 본풀이를 고해 올린 다음, 신과 환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춤판을 벌이기도 한다.

불목당 본풀이

중문마을의 본향신인 중문이하로산이 딸의 행실이 나쁘다고 하여 무쇠상자에 담아 바다로 띄워버린다. 파도에 휘둘리다보니 물 위에도 3년 물 밑에서도 3년의 세월이 흐른다. 무쇠설함은 바다의 나라 용왕황제국 산호가지에 걸린다. 용왕황제는 3형제의 딸을 두고 있었다.

집박을 다녀온 큰딸은 무우나무(珊瑚)가지에 걸려 있는 무쇠상자를 보고 와서 황제에게 말한다.

“저기 무우나무 뿔가지에 난데없는 무쇠상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큰딸이 가서 내려와 봐라.”

큰딸은 내려 올 수 없었다. 셋딸도 마찬가지다. 작은 딸만이 내려올 수가 있었다.

이제는 열어봐야 할 관이다. 황제는 딸들에게 무쇠상자를 열어보라고 한다. 큰딸도 열 수 없고, 셋딸도 열지 못한다. 작은딸만이 열 수 있었다.

그 속에는 곱게 단장해 입은 동자(童子)가 들어앉아 있었다. 바로 이 동자는 중문이하로하로산의 외동딸인데 행실이 나쁘다고 하여 무쇠상자에 담아 띄워 버릴 때 동자복을 입혀 버렸었기 때문이다.

황제는 말문을 연다.

“너는 귀신이나, 생인이나?”

“귀신이면 어찌 이런 행착을 하고 이리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생인이옵니다.”

“아버지 나라는 어디냐?”

“저희 아버지는 한라 영주산에서 솟아난 ‘중문이하로하로산’이옵니다.”

“어머니는?”

“예, 진궁부인이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리로 와 무우나무 상가지에 걸려지게 되었느냐?”

“저는 태어나마자 부모님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버릇을 유전시킬 수는 없다시며 저희 아버님께서 무쇠상자에 담아 이렇게 띄워버렸기 때문이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한 용왕황제국의 황제는 황제국의 공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황제는 동자(童子)에게 큰딸 방으로 들라고 하나 문을 열지 않았고 셋딸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작은딸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기뻐한다.

작은딸이 무우나무 가지에 걸린 무쇠상자를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열기도 했으니 이게 모두 인연이라 생각한 황제는 작은딸과의 결혼을 허락한다.

황제는 동자에게 밥상을 올린다. 큰딸이 들고 가도 동자는 받지 않는다. 셋딸이 들고 가도 마찬가지다. 작은딸이 들고 가니 밥상을 받아들고는 황제에게 꾸밈을 늘어 놓는다.

“황제님, 대국(大國)은 대국인지 모르나 우리 소국(小國)만은 못하옵니다.”

“대국이온데 우리 소국만 못하은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소국에서 사위를 대접하려고 하면 반드시 닭을 잡아 올려야 하옵니다.”

이 말은 바로 혼례상(床)을 올리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사위 하나를 못 먹일 수가 있겠느냐며 요구대로 잔치상을 마련하여 대접한다.

혼례가 끝난 바로 그 즈음이었다. 바다의 세계에서 동의용왕국과 서의용왕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용왕황제국 황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싸움을 평정시킬 수가 없다. 황제는 목을 놓아 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위는,

“딸을 데리고 나가려 하니 억울해서 우옵니까, 섭섭해서 우옵니까?”

“딸이야 한번 너에게 말진 이상 그것 때문에 올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바다 나라의 변을 나의 힘만으로 막을 수가 없어서 울고 있노라.”

“처부모도 반부모인 것을 내가 대신 나서서 막아오겠습니다.”

동자는 비수같은 칼을 매어두고 땅아지를 둘러타고 난군과 싸워 이기고 돌아온다.

“세변(世變)을 막고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름까 칼날이 무디어 있을 정도로 세변을 막고 돌아온 것이다.

“너희 공이 지대한 것을 그대로 보낼 수는 없도다. 열두가지 풍운조화와 일흔여덟 풍문부채를 내어주거든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인간세상에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과 주물(呪物)까지 내어준 것이다.

용왕황제국에서 죽으라고 내뱉워져 버렸던 동자는 황제국의 공주와 함께 온갖 필요한 것과 주물을 가지고 바로 내뱉워 버렸던 '싱거물'로 다시 올라온다.

그때 마침 느진덕정하님은 싱거물에 허벅을 지고 물을 길러 와 있었다.

동자는 느진덕정하님에게,

“물을 길고 돌아가거든 일곱살에 죽으라고 바다로 띄워버린 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아버님께 현신(現身)을 올리고자 한다고 전하라”

허겁지겁 올라온 느진덕정하님은 중문이하로하로산에게 말한다.

“일곱살에 죽으라고 내뱉워 버린 아기가 저기 당도했습니다.”

“일곱살에 죽어버린 아기가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다는 말인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못된 행실을 생각하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되일러라.”

외면당한 자식은 용왕황제가 준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주물(呪物)로 조화를 부린다.

눈에는 안질을 일으키게 하니 눈이 어두워간다. 이빨에는 치통을 일으키게 한다. 중문이하로하로산도 이는 살아 돌아온 애기의 조화라고 믿는다. 하님에게 애기에게로 가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전하도록 이른다. 부모결으로 돌아온 동자는 다시 조화를 부려 아버님의 모든 병을 고친다. 부모님께 절을 해두고 자기가 살던 방으로 들어가 옛 옷으로 갈아 입는다. 옛 옷은 여자 옷이다. 차리고 나선 것은 분명 여자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용왕황제국 말쑥딸은 속았음을 알아차리고 땅을 치며 통곡한다.

중문이하로하로산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용왕황국에서 온 따님에게,

“너는 여자의 몸으로서 속아서 이곳까지 이르렀으니 어쩔 수가 없겠구나. 내가 정월 대보름날과 팔월 대보름날 단골(信仰民)들로부터 제를 받고 있는데, 그 단골들을 너에게도 가도록 할 테다. 그리고 단골들이 집안에서 굿을 할 때라도 너를 초대하도록 하겠다. 그때에 큰굿을 할 때는 열두석으로 놓고, 작은굿에서는 여섯석

으로 늘도록 하겠으니 너의 한을 풀며 살아가도록 하거라.”

그러면서 현재의 불목당 좌정처로 안내해준다.

(이상의 본풀이들은 1985년 8월 7일 서귀포시 예래동에 거주하는 女巫, 김씨의 제보에 의한 것임.)

본풀이의 내용과 같이 저 먼나라(龍王皇帝國)에서 全知全能한 呪物을 가지고 온 '용왕황제국 말갯말애기'는 지금의 불목당으로 가서 좌정하게 된다. 제주도 무속 본풀이들에서 저 먼 나라에서 온 여신은 '풍요의 여신' 또는 '천지전능한 여신'임은 여러 본풀이들에서 확인되는 바, 불목당의 본풀이도 그 軌를 같이한다. 濟州島民,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은 바다 건너 먼 나라에 또 하나의 성역이 있었음을 믿어왔다(玄容駿의 글 “古代 韓國民族의 海洋世界”, 문화인류학 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57쪽). 그 나라는 모든 생명과 풍요의 원천지이며, 樂土요, 理想鄉인 동시에 인간의 사후, 死靈이 往生하는 곳으로 관념되어 오기도 했다. 그래서 바다 건너 저 먼나라의 신들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도래하여 복리와 풍요를 준다고 믿어왔다.

濟州의 開國神話 격인 三姓始祖神話의 세 공주 역시 바다 먼 나라로부터 마소와 오곡의 씨앗을 가득 싣고 제주 땅에 도래했고, 삼국유사의 鰲洛國에 도래한 수로왕비 또한 비단옷과 金銀珠玉 등을 한배 가득 실어왔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자기 희생을 무릅쓰면서, 부모신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생활의 필수품인 불을 전파한 프로메테우스처럼 위대한 문화의 영웅들이기도 모른다.

불목당에 좌정해 있는 女神의 이 마을의 본향당과의 관계는 본풀이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불목당에 좌정해 있는 여신을 두고, 중문마을 본향신의 '비리딸'이라 한다. 이는 '빌려 온 딸'의 뜻. 그래서 본향당의 정기적 祭日에는 불목당의 당신도 그리로 간다고 믿고, 또 그 신 몫으로도 멧그릇을 준비하기도 한다.

夫婦神 몫으로 큰 사람메를 2기 준비하고 두 딸의 신 몫으로는 2기의 보시기메를 준비한다. 본향당의 큰 祭日날에 불목당의 당신도 그리로 온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신앙민들이 불목당으로 갈 때에는 불목당신 몫만 준비한다.

신앙민들이 집에서 굿을 치를 때는 불목당의 신을 모셔온다. 본풀이의 내용

대로 큰곳에서는 열 두석으로 작은곳에서는 세 석으로 그 신을 늘린다고 한다. 신앙민들의 병도 불목당신의 조화로 믿는다. 불목당신은 한맺힌 神이다. 저 먼 나라 용왕황제국에서 황제의 막내딸로 태어났으나 결혼도 못해본 한맺힌 신이다. 그 신의 원한을 풀어줄 때 산 사람들의 병도 풀린다는 思考原理의 소산이다. 산 사람들의 병의 起因도 용왕황제국의 막내딸처럼 맺힌 한에서 일어난다고 믿는 것인지도 모른다.

2.3. 生業(어업)守護神的 성격의 神堂의 신앙형태와 본풀이

중문마을의 생업수호신적 성격의 신당은 어업수호신만 두드러진다. 이 마을의 어로활동의 중심지가 星川洞인만큼 그 신당들도 성천동에 있다. 성천포구 변에는 어업수호신적 성격의 '개당'(또는 선왕당)이 있다. 그 당에는 동서로 제단이 돌이나 있다. 서쪽의 제단은 '비바리당'(비바리는 제주 방언으로 제집애의 뜻) '전신당' 또는 '개당할망'이라고 통칭되는 신을 위한 祭壇이고, 동쪽의 제단은 원래 이 포구의 諸般事를 관장한다고 믿어 온 신을 위한 제단이다.

원래, 이 신들은 따로 좌정해 있었다. 후자의 신은 성천포구의 제반사를 관장하고 있던 신이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나 전신당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중문관광단지 내, 정확히 말해서 색달리 2959번지에 있었다. 중문관광단지 개발에 밀려 지금의 위치로 쫓겨난 셈이다. 신앙민들은 중문관광단지 내 다리공사를 할 때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도 전신당 堂神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한다.

다행히 서울대학교 제주학우회에서 1973년 「濟州神堂의 內容 및 現況調査報告書」를 발간한 바 있다.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전신당의 원래 모습을 재구해 본다.

개당할망 전신당(알로내려 전신당) 비바리당 또는 처녀당

※ 위치 : 126도 25분 9.7초, 33도 16분 38.6초

색달리 2959번지

해수욕장 입구와 해수욕장(중문)에 위치 바다에서 500미터

전망-바다(특히 항구)

※ 神木 : 팽나무와 보리수나무 등

※ 물색이 있고, 깻문의 흔적 찾지 못함. 돌항로 1개 있음.

※ 단골 및 심방 : 색달리 사람들이 주이나 성천동 사람들과 어부와 해녀,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대에 간 자녀를 둔 집안. 매킨심방은 일정치 않음.

중문마을은 천제연 폭포가 마을 서쪽의 경계선이다. 전신당이 천제연 폭포 줄기인 성천내(川)를 중심으로 하여 구획된다면 전신당은 穰達里 경상에 있다는 말이다. 두 마을에는 각기 그들의 산수와 자연을 차지해 있으면서 그들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제반사를 관장하는 본향신이 따로 있다. 그러나 어업수호신적 성격의 해신당은 그렇지 못하다. 전신당이 색달리 경상에 있으면서 중문리 경상에 있는 성천포구를 비롯한 그 일대의 바다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러니 색달리에 거주하는 신앙민들은 물론 중문마을에 거주하나 바다의 발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신당을 신앙한다. 본향당은 두 마을이 각기 다르나 바다의 발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적으로도 信仰圈域으로 볼 때 바다발은 두 마을이 동일하나 물의 생활권 곧 본향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권역은 다르다는 말이다. 앞에서 소개한 본풀이 제보자인 김씨가 들려준 전신당의 본풀이는 다음과 같다.

전신당 본풀이

이 당의 여신(女神)은 색달마을의 모든 것을 차지한 본향신(本鄉神)과 인연이 있다. 색달마을의 본향신은 한라산 서쪽 허리 '소문뿔밭'에서 을축(乙丑) 3월 대보름날 태어난 아홉형제중 여섯번째의 신이다.

그 신의 이름을 '색달리하로산한집'이라 한다. 색달리하로산한집은 한라산 서쪽 허리에서 태어나 색달리로 내려선다. 색달리경에 있는 '우보름오름'(峰) 동쪽 허리에 내려와서 앉는다. '내가 좌정할 곳이 어디메고!' 생각하며 좌우를 살피고 있었다. 산밑에 '쿠낭게'라는 사람을 만난다. 그이는 자식도 없이 혼자서만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이였다.

색달리하로산한집은 말문을 연다.

"당신은 왜 여기에서 외로이 혼자서 사시오?"

"저는 성편이 누구고 외편이 누구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누구지도 모릅니다."

"우마가 태어나면서 산으로 울려보내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하는 법이다. 그러니 산혈(山穴)과 물혈(水穴)을 밟아서 인간처로 내려가 살아야 하느니라.”

“어데로 가야 인간처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때에는 색달리라는 마을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때였다.

“내가 내려가서 인간처를 만들어 놓을 테니 그곳에서 살도록 하라.”

색달리하로산한집은 우보름오름을 병풍삼고 배린내오름(星川峰)을 시름처로 삼아 성천봉 위에 올라 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천제연 하류 속칭 ‘붉은덕그정’(그정은 제주 방언으로 절벽의 뜻)밑에는 어여쁜 처녀애기가 울고 있었다. 색달리하로산한 집은 산봉우리에서 내려와 냇가(황개창)를 건넜다. 혼자서 울고 있는 애를 만나기 위해서다.

“너희 아버지 나라는 어데냐?”

“예, 저희 아버지 나라는 용왕황제국(龍王皇帝國)이읍니다.”

바다나라라는 말이다.

“바다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째서 인간의 세계로 오게 되었느냐?”

“예, 용왕황제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만,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인간의 세계로 귀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든 여(嶼) 난 여를 지나고 ‘삼성제 후네기’(波瀾)에 밀리며 오다가 보니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세상에서 살도록 해라.”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색달리하로산한집은 전신밭으로 데리고 간다. 전신밭에 있으면서 성천(또는 ‘배린’)포구를 오가는 배와 그리고 잠수(潛嫂)를 차지하여 좌정하라고 이른다. 성천포구를 오가는 배들이 대접을 소홀리하거든 파선(破船)을 시키라고 한다. 그러면 채지고기도 울리고 여러가지 고운 물색옷들도 울릴 것이라 한다.

용왕황제국에서 귀양은 따님애기는 색달리하로산한집의 딸대로 전신밭에 좌정해 있으면서 성천포구를 오가는 배와 잠수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이 되었고, 색달리하로산한집은 색달마을로 올라가 그 마을의 제반사(諸般事)를 관장하는 본향신(本鄉神)이 되었다.

전신당이 지금의 중문관광단지 구역 내 색달리 경상에 있었다면, 성천포구에도 어업수호신적 성격의 해신당이 있다. 특별한 본풀이가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면, 단지 포구를 지키는 신에 지나지 않은 듯하다. 전신당이 관광개발에 밀려나면서 지금은 이곳으로 와 있다.

현재는 색달리에 거주하는 해너들과 성천동의 포구를 이용하는 어부와 중문동에 거주하는 해너들은 정기적으로 또한 부정기적으로 이 당으로 와서 그들의 祈求事項을 빈다.

3

이 이외에도 성천동 속칭 '싱거물'에는 '배린내당' 또는 '싱거물당'이라 하는 당이 있다. 이 당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섬기는 당이라기보다 일부의 집안 또는 신앙집단에서만 모시고 있는 당이다. 중문리에 거주하는 李氏와 金氏 집안과 관계있는 신앙민들만 이 당을 신앙한다고 한다. 이 당은 주로 祭日이 매8일을 擇日하고 와서 제를 지내기 때문에 '여드렛당'이라 하기도 한다.

제주도 무속사회에서는 母系로 계승되는 당이 있다. 한 마을에서 태어나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마을의 당신도 그를 따라 간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신앙은 토산마을(表善面 兎山里) 堂神인 경우가 그렇다고 한다. 만약 중문마을에 토산마을이나 그 마을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시집 온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마을의 당신도 같이 따라 온다는 것이다. 바로 그 堂神이 성천동 속칭 '싱거물'이라는 곳에 모셔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당을 일명 '가지 갈라온 당' 또는 '가지 가른당'이라 한다. 곧 토산마을의 神體 일부를 이리로 모셔왔다는 말이겠다.

토산마을의 당(속칭 '여드렛당')은 제주도 여러 곳에 널리 퍼져 있다. 보통 '토산당'이라 하기도 한다. 이 당은 뱀신을 모시는 당이라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당의 신은 신앙민들의 딸에서 딸로 꼭 따라다닌다고 믿는다. 이 신을 崇仰하다 중단이라도 한다면 집안이 망한다고 널리 이야기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일반은 그들 집안에 장가들기를 꺼리고, 만일 장가를 들었을 경우에는 이 신을 모시지 않으면 남편이 앓게 되므로 하는 수 없이 이 신을 숭앙하게 마련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여드렛당의 분포는 거의 전도에 퍼져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당신들은 본향당신처럼 系譜를 설명하는 데가 없이 거의 토산마을 8일

당신의 분과라고 이야기한다.

당제는 매월 매8일에 소규모로 행하고 당굿으로 크게 하는 데는 6월 8일에 하는 곳이 많다. 또 집안에서 굿을 할 때는 이 신을 굿판으로 모셔다 놓고 행하기도 한다.

지금도 토산마을 본향신의 분신(分身)을 모신 성천동 '싱거물'에 있는 가지갈라온 토산당에는 神木이랄 수 있는 보리수나무 아래 여러가지 물색들과 紙錢들이 걸려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도 신앙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천동에는 엄밀히 말해서 세 군데의 神堂이 있는 셈이다. 관광단지 구역 내(색달리 구역)에 좌정해 있었으면서 성천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의 어업을 관장, 색달리와 중문리에 거주하는 해너들과 성천포구를 이용하는 어부들로부터 祭를 받은 '전신당'과 성천포구를 지켜주는 '개당'(또는 선왕당) 그리고 속칭 '싱거물'에 있는 '가지갈라온당'이다. 싱거물의 가지갈라온당이 거의 개별 신앙의 聖所라면, 개발에 밀려 이 동네 포구로 쫓겨온 전신당과 개당은 성천동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동의 聖所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 포구에서는 바다의 발을 일터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바로 이 포구변 당(전신당과 개당)에서 2년에 한번씩 영등굿을 치렀었다. 이 굿이야말로 성천동 사람들의 공동의례였던 셈이다.

영등굿은 2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 어느날을 擇日하여 이 굿을 치룬다. 이 굿은 본격적으로 堂神을 위한 굿이라기보다 영등신을 모시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영등신은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2월 초하루에 濟州島를 찾아와서 농·어업에 풍요를 주고 2월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來訪神이다. 그래서 2월 초하룻날 영등환영제를 하고, 13일에서 15일 사이의 어느날에 영등송별제를 하는 곳도 있었다. 그 送別祭日은 마을에 따라서 다른데, 근래는 많이 없어진 형편이다. 특히 해촌에서의 이 굿은 소라, 전복, 미역 등 해너 채취물의 풍요를 비는 행사와 어부의 해상 안전을 비는 행사가 그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성천동 사람들의 개별제의 역시 그들 바다밭의 생활을 보살펴 준다고 믿는 전신당과 개당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5

지금까지 神堂을 중심으로 성천동이 속해 있는 중문마을의 신앙형태 속에서 성천동이 갖고 있는 信仰構造를 살펴왔다. 중문이라는 마을의 諸般事를 관장하는 본향당의 신앙은 성천동을 포함한 중문마을 사람들 누구나 신앙하고 있었다. 그리고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불목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바다의 세계를 관장하며 이들의 생업을 수호하는 신을 위한 신앙은 좀 다르다. 바다의 생업을 수호하는 신은 중문이라는 마을 전체가 신앙한다기보다 실제적으로 그 구역 바다의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생업집단들만이 신앙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색달리에 거주하는 해녀들과 중문마을에 거주하는 해녀와 어부들은 마을이 다른 만큼 그들 각기 信仰하는 본향당은 다를지언정 그들의 생업무대인 성천포구를 중심으로 전신당과 개당(또는 선왕당)을 신앙하고 있었다.

이는 두 마을 각기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공간이 다르며, 본향당도 다르게 신앙하고 있으나 그들의 바다밭 삶이 같으며, 성천포구를 중심으로 한 전신당이나 개당(또는 선왕당)의 신앙은 동일했다.

그러므로 성천동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은 중문동 사람들과 그 軌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 생업의 무대인 바다밭 삶은 오히려 이웃마을인 색달마을 사람들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곧 생활공간의 二重構造가 바로 信仰構造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參 考 文 獻

- 고광민 : “당본풀이에 나타난 葛藤과 對立”, 「耽羅文化」제2호, 濟州大學校
탐라문화 연구소, 1983.
- 고광민 : “堂神들의 역할분화와 그 신앙형태”, 「比較民俗學」창간호, 비교
민속학회, 1985.
- 서울대학교 濟州學友會 : 「濟州神堂의 內容 및 現況報告書」, 1973.
-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 「國文學報」제7집, 1975.
- 현용준 : “古代 韓國民族의 海洋他界”, 「文化人類學」5집, 한국문화인류학
회, 1972.
- 현용준 :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1986.
- 현용준 :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